

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 날개를 편다

01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단(端)이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나에게 있는 네 가지 단을 모두 넓히고 채우면 불이 비로소 타오르면 샘이 비로소 흐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을 채우면 진실로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채우지 못하면 부모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 ① 인(仁)의 단인 측은지심은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다.
- ②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착한 본성을 기르는 수양을 해야 한다.
- ③ 사람은 모두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 ④ 네 가지 단[四端]을 가정에 적용하면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된다.
- ⑤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인 양지(良知)는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다.

02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마음속에 있는 인의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대인(大人)이다. 반면 인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을 모른다면 곧 소인이다.

을: 예(禮)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일에 예가 없으면 이루어짐이 없다. 군주가 예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직을 훼손시킬 따름이다.

· 보기 ·

ㄱ. 갑: 예(禮)의 실마리는 겸손히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다.

ㄴ. 을: 예를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ㄷ. 을: 사람은 배움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

ㄹ. 갑, 을: 사람들을 예로써 교화한 이후에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3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선한 네 가지 마음[四端]을 확충하여 네 가지 덕[四德]을 완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을: 사람들이 본성을 그대로 따른다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드시 예(禮)를 배워 그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해야 한다.

· 보기 ·

ㄱ. 갑: 사람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을 가진다.

ㄴ. 을: 사람이 본성을 높이는 것은 스승과 법도가 없기 때문이다.

ㄷ. 을: 모든 사람은 각자가 제정한 예법(禮法)에 따라 살아야 한다.

ㄹ. 갑, 을: 사람이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4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성(性)을 알면 하늘[天]을 알 수 있게 된다. 내 몸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입이 좋은 맛을 추구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의 인(仁), 군신 사이의 의(義) 등이 성이다.

을: 성(性)과 위(僞)는 다른 것이다. 사람의 성은 타고난 것이므로 배우거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는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은 성이고, 배고파도 어른을 위해 사양하는 것은 위이다.

· 보기 ·

ㄱ. 갑: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욕구도 인성(人性)으로 보아야 한다.

ㄴ. 을: 사람의 성에는 생존하려는 욕망과 이기적 욕구가 포함된다.

ㄷ. 을: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선한 본성에 존재한다.

ㄹ. 갑, 을: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5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마음[心]은 곧 이치[理]이다. 이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곧 천리인 것이니, 어찌 마음과 이치를 구분하여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겠는가? 마음 밖에는 이치도 사물도 없는 것이다.

을: 마음은 몸을 주재하며 이미 움직인 것과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은 본성이 되고, 이미 움직인 것은 정(情)이 된다. 이를 “마음은 본성과 정을 아우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 보기 •

ㄱ. 갑은 양지(良知)가 마음의 본체이며 천리(天理)와 같다고 본다.

ㄴ. 을은 마음을 바르게[正] 하는 격물(格物)으로써 앎이 실현된다고 본다.

ㄷ. 을은 이(理)와 기(氣)가 오직 인간만이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ㄹ. 갑, 을은 도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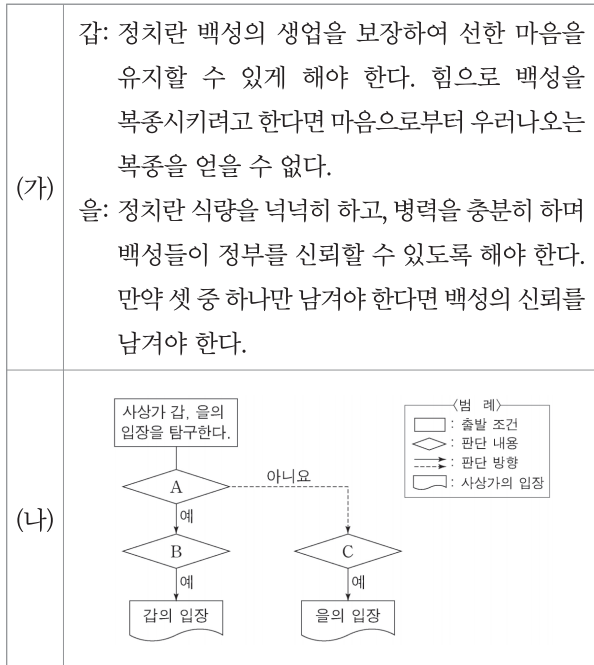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이 타고난 본성에 따른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다툼이 일어나면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면 사회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절에 바탕을 둔 교도(敎導)가 필요하다.

- ① 사람은 이기적 본성을 지니므로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는 동등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③ 사람의 본성[性]은 악하지만 노력[偽]을 통해 선행을 할 수 있다.
④ 사람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정(性情)을 확충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
⑤ 성인(聖人)은 타고난 본성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다.

07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A: 인의를 해친 폭군을 혁명을 통해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가?
- ㄴ. A: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가?
- ㄷ. B: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는 것인가?
- ㄹ. C: 통치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동 사회를 구현하는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8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서 바르지 않음이 생긴다. 생각이 머무는 곳이 물(物)이고, 바로잡는 것이 격(格)이다.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옳은 생각을 행해야 마음의 본체가 회복된다.

을: 마음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할 때, 기(氣)로 형체를 만들고 성을 부여하였다. 기질의 차이로 누구나 성이 고유함을 알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앎을 지극히 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앎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 실천이 없는 앎은 참된 앎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을은 ㉢ 앎과 실천에는 선후와 경중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 선후를 논하면 행함이 나중이고, 경중을 논하면 앎이 행함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본성을 보존할 것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